광주·전남 상장사 시총 22%↑… 거래대금은 4조 껑충

전체 48조7503억원…한전 주가 급등 영향
덕양에너젠 신규 상장에 코스닥도 58%↑

역대급 증시 불장이 이어진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한 달만에 21.7% 증가했다. 지역 투자자의 거래대금도 무려 4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의 '1월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전남 상장법인39개사(유가증권시장16곳·코스닥시장 23곳)의 시가총액은 48조7503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6840억원(21.7%) 늘었다.

시가총액 증가는 지난해 12월 말 30조원대까지 내려갔던 한국전력의 주가가 37조4265억원으로 7조1258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시가총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전 체	지역별		
		광주	전남	합계
'25. 12월말	39,742,212	32,542	368,120	400,662
'26. 1월말	**49,374,993**	**35,503**	**452,000**	**487,503**
변동액(률)	9,632,781(24.2)	2,961(9.1)	83,879(22.8)	**86,840(21.7)**

한국거래소 제공

한전은 1월 한 달 동안 23.5%가 늘어 시가총액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시가총액 8639억원 규모의 덕양에너젠의 신규 상장도 시가총액 상승의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첫 IPO(기업공개) 기업으로 주목을 받은 코스닥기업 덕양에너젠은 지난 2020년 설립, 전남 여수에 본사를 두고 가성소다 제조 공정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자체 기술력을 통해 고순도 산업용 수소로 정제·공급하고 있다. 개장 첫날 공모가(1만원) 대비 248.50%(2만4850원) 상승한 3만4850원을 기록하는 등 신규 상장주 수혜를 톡톡히 입었다. 이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전월 1조9812억원에서 3조1200억원으로 57.5% 증가했다.

1월말 전체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중 광주·전남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1.0%로 전월과 동일했다.

주식시장의 이례적인 상승세에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의 거래대금도 9조1766억원으로 무려 77.3%(4조22억원)가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은 6조1597억원으로 전월보다 104.9% 증가하고 코스닥 시장도 3조169억원으로 39.1%가 늘었다.

시가총액 증가액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에서 한전에 이어 한전KPS가 2948억원(13.2%) 증가한 2조5200억원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스닥에서는 지난해 12월 말에 816억 증가한 에스오에스랩이 1762억원이 더 늘어나며 전월대비 69.7%의 가파른 증가세를보였다. 오이솔루션과 DH오토웨어도 각각 459억과 121억 증가하면서 3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광주 입주전망지수 100 회복…거래회복 기대감

23.6p 상승…광주·전라권 입주율도 깜짝 반등 72.6%
주택산업연, 미분양·대출 변수 등 수요위축 우려 여전

주택시장 개선 기대감에 광주·전남 아파트 입주 경기도 회복세를 보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0일 발표한 '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광주 입주전망지수는 100.0으로 전월보다 23.6p 상승했다. 전남 역시 90.9로 같은 기간 13.2p가 올라 입주 여건 개선 기대가 반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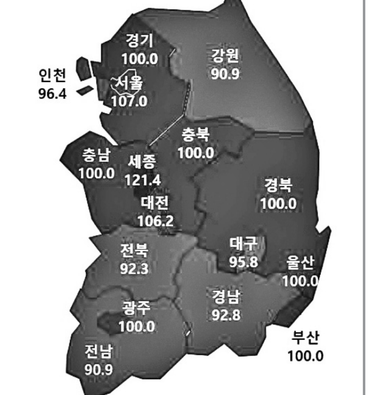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광주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서도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정부 대책 발표 이후 크게 위축됐던 시장 심리가 회복된데다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광역시(103.9)가 평균 12.7p 상승한 가운데 광주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세종(121.4, 21.4p↑), 대전(106.2, 12.5p↑), 부산(100.0, 10.0p↑), 대구(95.8, 8.3p↑) 순이며 울산(100.0)은 보합을 기록했다.

도는 평균 15.6p 상승한 94.4로 제주(88.2, 28.2p↑), 충남(100.0, 23.1p↑), 충북(100.0, 22.3p↑), 강원(90.9, 20.9p↑), 경북(100.0, 13.4p↑), 전남(90.9, 13.2p↑), 전북(92.3, 10.5p↑) 순으로 나타났다.

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실제 입주율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지난달 기준 광주·전라권 입주율은 72.6%로 전월대비 21.8%p 상승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재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5.0%로 전월 대비 13.8%p 상승했다.

수도권(82.6%)은 1.0%p 하락했으나 5대 광역시(69.8%)는 14.0%p, 기타 지역(76.0%)은 19.8%p 뛰었다.

미입주 사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4.5%), 잔금대출 미확보(32.8%), 세입자 미확보(15.5%), 분양권 매도 지연(3.4%) 순이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수도권 주택 수요관리와 신규공급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미분양에 대한 정책적 공백과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수요 위축이 지속됐다"며 "향후 입주율 회복이 일시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

농협경제지주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과와 배, 한우 등 설 성수용품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농협하나로마트, 설 성수품 할인행사

16일까지 전국 매장서 최대 62% ↓

농협경제지주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과와 배, 한우 등 설 성수용품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사과와 배를 행사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대 24%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파와 한우 등 국산 농축산물은 물론 가공식품과 생활용품까지 최대 62%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할인행사를 마련했다"며 "하나로마트의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설 선물 수요를 겨냥한 '설 선물세트 할인행사'도 같은 기간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는 10일 시청에서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광주산업 르네상스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고, 광주시 주요 전략산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미래산업 총괄 '광주산업 르네상스 TF' 가동

'광주·전남 행정통합' 앞두고 미래산업 전략 마련
AI·모빌리티·반도체 등 5대 전략산업 실행력 강화

광주시가 광주·전남 통합을 앞두고 인공지능(AI)·모빌리티·반도체 등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광주산업 르네상스 전담팀(TF)'을 가동한다.

광주시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광주산업 르네상스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고, 광주시 주요 전략산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광주산업 르네상스 전담팀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핵심 전략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별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계획해 내실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전담팀 위원장은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이 맡았으며, 광주테크노파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남대학교 등 지역 주요 연구기관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 20여명이 총괄위원으로 참여했다.

전담팀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별 실무과제 도출을 위해 △인공지능 △모빌리티 △반도체 △에너지 △가전 등 5개 분과를 구성했다. 각 분과는 산업별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과는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 2단계 사업 △인공지능 실증도시 및 규제프리존 조성 △NPU 컴퓨팅센터 구축 △기 구축된 인공지능 기반시설과 장비 활용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모빌리티 분과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실증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 구체화에 나서며, 반도체 분과는 남부권 반도체 핵심벨트 조성 등 국가 반도체산업 전략에 대응한 지역 전략 마련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과와 가전 분과는 각각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과 공조산업 중심의 가전 생태계 조성을 주요 논의 과제로 삼고, 산업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수시로 분과별 회의를 열어 미래산업 전략을 구체화한다. 각 분과는 광주시 관련 부서와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산업 현장의 핵심 과제를 심도 있게 발굴할 방침이다.

최종 결과물은 광주테크노파크가 종합·정리해 완료보고회를 통해 공유하고, 이후 산·학·연 협의회 등을 통해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산업 르네상스 전담팀은 광주·전남 통합 시대를 대비해 지역 산업의 방향성과 경쟁력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며 "각 산업의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행력을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산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코스피 5300선 복귀…개인 매도에 강보합

코스피가 10일 상승 출발해 강보합 마감하며 5300대로 다시 복귀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65p(0.07%) 오른 5301.69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52.17p(0.98%) 오른 5350.21로 출발해 한때 5363.62까지 상승했으나 장중 오름폭을 줄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24억원, 5641억원 순매수했다. 전날 3조원대로 역대 최대 매도한 개인은 이날도 8730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선물시장에서도 3862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간밤 뉴욕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다.

엔비디아가 2.4% 오르며 시가총액 4조6000억달러선을 회복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1.42% 상승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전 거래일 5.70% 급등한데 이어 이틀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에 이날 국내 증시도 미국발 훈풍에 장 초반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산지쌀값 상승세 뚜렷…정부양곡 공급 검토

수요조사 거쳐 공급 물량 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상승폭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에 따라,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공급 방안을 검토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지쌀값은 지난해 12월 15일 20㎏ 기준 22만8164원으로 전 순기 대비 0.1% 상승한 이후, 25일에는 22만7816원으로 0.2% 하락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달 5일 22만8420원(0.3%), 15일 22만9028원(0.3%), 25일22만9328원(0.1%)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으며, 이달 5일에는 23만232원으로 0.4% 올라 상승 흐름이 뚜렷해졌다.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공급 물량 산정을 위해 우선 금주 중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와 현장 재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산지쌀값 상승이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